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
 랑이 외애 결코 지
 랑 할것이 없으니
 갈라디아 6:14

4月25日(金)
1952年(昭和27年)
發行所
基督申報社
東京都千代田區
神田猿樂町2—4
振替口座東京185238
電話 神田(2) 2623 番
編集兼發行人吳允白

우리는 때때로 사도신경(使徒信經)을 표독한다. 그 이유는 우리도 옛날 사도와 같은 신앙으로 주의날을 기다리며 성도의 생활을 한다는 고백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 사도신경의 전부를 논하려는 것은 아니나 부활 신앙에 관한 부당한 부활절에 반성하여 보고자하는 바이다.

우리는 『장사한지사들만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생장하는 자 가운데서 다시 생장하는 것이기만 하는 때가 있자 아니한가 두렵다. 여기는 하나 믿지 못하는 믿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한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다. 이런 불신앙은 소위 과학적 정이론 현대에만 새로히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중에서 다시 사라나셨다』 전파 되었거늘 나 회중에서 어떤 이들은 온 어찌하여 죽은 자중에서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한 것을 보면 『일百九拾년전에도 있었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에게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사 무개교인들은 있었던 것인데』 그것

정치의 사상에 동서양의 대립이 격심하여감을 따라 세계교회운동도 남반구에 몰락하여 저가 고있다. 장막 혹은 장막보다 더한 천의 장막으로 상층을 못하고 있는 동구과 과거 서구라파의 교회는 정적나 사상에 종속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에규메니칼 운동의 영인 1000을 중심하여 이러나 문제와 사실을 일대 한 한국들라파 세계질서"라는 두운운론과 대의정명 이후의 현상이다.

教會의一致에努力忍耐

WCO는 一九〇〇年七月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때와 장 한쪽 둘만 특별히 주로 「한국교회와 세계전서」라는 성명에 복선군의 무력행동은 침략이라고 비난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권군의 군사행동은 국권현상에 입각한 정정행동으로 정당하다고 지지하는 태도를 표명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성명은 그후 동구라파진영안에 있는 모든교회에서 심각한 비판을 받고 동서진영 내의교회 상호간의 이간질을 더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로서 나타난것은 중국 조자진(趙紫宸) 박사가 WCO 중앙위원을 사직한사실이다. 또 참가한 개척교회대표 알렌 앨버트 감독은 토론토성명은 일방적이라고하여 「WCO는 서구라파에서만 일하게되는것을 피하려하나 이대로 가면 동상에 몰락할것이다.」고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앞담속에서도 WCO는 신개척에 전심과 인력으로 수존한 노력을 하고있다. 칠의장막에 가로막혀 있다할지라도 一九四八년에 임시총담회의에 참가하였던 교회에서도 말되한교회는 없다. 그중에서도 허러 우리는 한형제라」는 표어아래서 유우상통을 계속하며 WCO를 통하여 천신을 도모하려는 운동은 회장을 가지고 있다. 작년에 베1벨에서 열린 WCO상무위원회는 당면한 문제에 다음과같은 요지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WCO로서는 모든교회는 세상 권세에서 독립하여 교회간의 솔직하고 친밀한 거래에따라 참된 기독교적해답을 찾겠다. 둘째는 사회에서 할것은 인간과 인간사이에서나 문제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인간을 보초하기 위한 발인을 하여야 할것이다. 라는 성명과함께 모

록 최선의 노력에 인내와성실로 다하라는 권면을 한바 동서 물론하고 많은 찬동과 감사글들을 받았다.

WCO는중국인 조자진박사 사직문제와 체코사람 로마디 박사의 사건에 대하여 유감 뜻을 표명하는 동시에 「우리 오늘날까지 이러한일의 여러 다 그리스도가 한분뿐이신 리에서 서로 용서하고 일치소망을 가지고 동서의대립이 심각하여갈지라도 그리스도안에서는 하나의세계를 지향하여 갈것이다. 하여 일처에 노력 있다.

教會의獨立固執이 必要

높이외1루러교회지도자인 이빈트 벨크라1루씨는 물론1회에서「간장한사대교회와WCO의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요 다음과 같은 강연을 하였다. 「정지나」 경제문제를 잊어서

教會의 獨立固執의 必要

높이와 이루어 교회지도자인
이민르 벨크라 푸씨는 룰이
이들에게서 긴장한 시대 교회와 W O
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요
다음과 같은 강연을 하였다
『정지나 경제문제에 있어서』

世界學生討論會主題 韓國代表李正萃孃歸國



이정화 양

뉴·유 해럴드 트리본신문과
 판·아메리카 항공회사 공중주최
 인인 세계학생들은대회에 한국대표
 로 참가하였던 서울 이화여자
 고등중학 삼학년 이정화양은
 현재재부산 삼척원의 회의기간을
 마치고 귀국하는 도중 재일본
 한국YMCA의 개최한 환송
 회에서 세계는 피차가 이해
 와 협력을 바라고 있다고
 마음과 같이 말하였다.

에 눈물을 흘리며 긴장한 전
 운을하였다. 토의의 중심문제는협
 동적 이상실현에 치중되어 있
 었다. 깊은관찰과 명량한교제와
 성소한 안습 서사까지 친절히
 설명 안내하여 주었다. 우리나라
 략에 대하여도 여러 방면으로
 알려고 하는것이 사실이었다.
 이같은 노력을 앞날의 자유와
 평등된 세계실현에 도움이 될
 줄 안다.

日本基督教協議會計劃

日本의 聖書部數 一八四九萬頒布

패전한 일본에 많은 선교사와 패전일은근국민에게 성서를 보급하도록 하여달라는 맥시더원수의 요청에 따라 각 교파 선교부는 맹렬한 선교운동을 전개 하였다.

今年度豫算十四億圓

今年度豫算十四億圓
韓國側負擔은 二千萬圓

회학교 기본원칙을 세우

자발의 많은 교회들을 있어 버
 다섯만 개로 전보다 증가 되었다.
 주역수 삼백六、교회수 四一
 五、기도회처소 六九、개척교회
 八、이상합계 四九二、그중
 가톨릭교수 六五、(가톨릭지방九
 천안지방八、종서지방七、임천지
 방六)
教會被害와 敎役者
 구미전회당수 七九、
 반포도 파괴된회당수 一四九、
 미국감리교 신도들의 감이이다.

人事

金良善牧師 約二個月間以用務委員
 마치시고 一但歸國
 유노호氏 大韓YMCA協同總務
 訪日 一週間滞在
 金錫紋長老(總會會計) 用務委員
 四月二十四日日本國訪問

꽃이 피고 새의 노매 할 때가 이르렀다. (아 210) 부한자란 만물이
나타 가난한 자도 줄기는 봄이
봄은 빈부나 귀천을 가리
지 않는다는 것이야. 만물의 부
귀에는 저울에 걸렸던 주름살이
이다. 겨울에 잘 찢었던 옷은
피지는 봄 죽는 듯 하던 산꼭가
초목이 소생하는 생명의 봄
인생에게 천국을 가르치는
인생의 봄이기도 하다. 따뜻한
봄의 기도는 마음까지 부티
바람은 인생의 배속까지 미
이르러. 마음을 깨닫지 못하
불려라. 성령을 박탈하지 마
는 유순한 마음으로 새들의
마음으로 인간 도배
노래와 꽃의 우슬을 일간 도배
무우독 마음에 양순가절을 감
다 주리라. 인생이 봄노루와도
뛰도록 꽃을 찾는 벌
오기 전에 하늘의 영원한 날
찾도록 하라. 꽃은 여러
봉절은 기진의 빚애를
느끼지라도 주의 진실하신말씀
을 할 깨달은자는 종월새같이 천
승을 오르기만 하리라. ▲봄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
그리스도의 부
가 되거나 그리스도의 부
없다면 우리는 죄공물치
었다면 옛사람의 무덤에는 부활
있었지만 그리스도만 부활

誤認된
日本視察報告
大韓長老會 權會長

在日基督青年

평민외교의 선두에 서 있음

없는줄 아나
이념을 모르는책
한것은 우리신도

이러나 일부에서는 문제되
있읍니다. 이조五百年의 망

다. 우리의 바라는 것은

안

준

教會學校
教師講座

學生의 役割 (1)

부할 준비를 하였다는 것이
다. 그는 자기와 일생의
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 싶은 돈을 품퐁히 애껴

고 할 때에나 무엇이 될
고 애쓸 때에 전진하며 파
(波動) 하는 것이 이 특성
은 것이요 사물이 무엇일
누구나 다 광둥한 기조고

아무런	기회나	감동을	보
않는	것은	어떤	일인가

1. 모든 것은 좋
 2. 그러나 만 그
 3. 리는 것이다.
 4. 교사가 되려면
 5. 의로

있으니 하는 소리에는 온
 고 천국의 주를 종
 우리도 이들의 소심
 그

을 미국 보다 더 좋
 잤으니 배 마음 안
 감사 합니다.

福音書入門
(3)

新編
마가福音에 地方問題 (上)

첫째로 마가복음이
음이 되었다는 초대교회

전설
인물 (제2권 三十九장) 뒤

남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나라나 기쁨을 기대한다는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추
감사합니다.



사랑의原子彈



改革派世界四月號

内 容 目 次

説 十 一 日
ガ ラ テ ヤ 書 講 解 (四 回)
誠 (四 回) 教
恩・寵 論
聖 書 評
その他 書 評

(定價40圓)

發 行 所 **改革派世界社**
東 京 都 世 田 谷 區
北 邊 五 - 六 五 〇